

간담이 서늘... 공포영화 어디까지 봤니

OTT 리뷰 <2> 공포영화 3편

후텋지근한 여름, 끈적한 습기가 온몸에 달라붙는다. 이럴 때 에어컨보다 확실한 냉기가 있다. 바로 공포. 무심코 커튼 너머를 쳐다보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것 같은 두려움,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기이한 긴장, 등골을 타고 흐르는 소름 이야말로 무더위를 잊게 만드는 묘약일지 모른다. 일상 가까이 숨어든 섬뜩한 현실 공포부터 아름다운 고딕 호러까지. 서늘한 여름밤을 책임질 OTT 공포영화 세 편을 소개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넷플릭스-유전' ...현실공포 도시괴담 '티빙-원정빌라'
100년전 공포가 다시 '쿠팡플레이-노스페라투' 등 골라보는 재미 솔솔

◇넷플릭스 '유전'
'미드소마' 등으로 잘 알려진 아리 애스터 감독의 장편 데뷔작. 가족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때로 가장 깊은 공포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영화는 할머니의 죽음을 기점으로 벌어지는 섬뜩한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부에 숨겨진 트라우마와 억압된 감정을 파고든다.
주인공 애니는 어머니 엘렌의 장례를 치른 뒤, 가족 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낀다. 어린 딸 찰리는 불길한 행동을 반복하다 사고로 사망하고, 아들 피터는 환영과 자해에 시달린다.
애니는 상실의 슬픔 속에서 딸의 영혼을 불러내는 강령술을 시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



가 악마를 숭배하던 사이비 집단의 일원이었음을 알게 된다. 애니는 파국으로 치닫는 가족의 운명을 막으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듯 흘러간다.

영화는 불편하고 짙은 감정의 축적을 통해 관객의 숨을 조인다. 기존 공포 영화의 문법을 비껴간



여름에 불만만 OTT 영화 3편을 추천한다. '원정빌라'

전개와, 아리 애스터 감독 특유의 상징과 은유는 불쾌하면서도 묘한 여운을 남긴다.

◇티빙 '원정빌라'
공포는 때로 먼 곳이 아닌,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작된다. 김선국 감독의 영화 '원정빌라'는 재개발 지역의 낡은 빌라를 배경으로 불편한 이웃과의 갈등을 그려낸 현실 공포 스릴러다.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 중간소음과 주차 문제, 이웃과의 불화 같은 일상적 긴장감이 점차 위협으로 변지며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원정빌라 203호 주민 주현은 병든 어머니와 조카를 돌보며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이다. 그의 평범한 일상은 303호 이웃 신혜와의 끊임없는 마찰로 조금씩 균열을 맞는다.

어느 날 주현은 신혜의 우편함에 사이비 종교 전단지들을 찾아내는 소심한 복수를 감행한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갑자기 친절하게 변한 신혜는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빌라 곳곳에 기이한 분위기가 드리운다. 사이비 집단은 주민들의 틈을 파고들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주현의 가족까지 위협한다.

특히 배우들의 열연이 눈여겨볼만 하다. 주현 역의 이현우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을 섬세하게 표현했고, 신혜 역의 문정희는 정체불명의 공포를 기이하고 섬뜩한 분위기로 끌고 간다. 도시괴담

같은 설정은 흥미롭고 배우들의 연기도 설득력을 더하지만, 다소 빠른 전개와 설정의 비약은 아쉬움을 남긴다.

◇쿠팡플레이 '노스페라투'
100년 전의 공포가 다시 깨어났다. 고전 뱀파이어 영화의 시초로 꼽히는 무성영화 '노스페라투' (1922)가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고딕 호러의 정수를 살린 이번 리메이크는 현대적 장르 문법을 따르지 않고, 극도로 절제된 미장센과 조명, 고풍스러운 세트를 통해 '그림 같은 공포'를 창조해낸다.

19세기 독일, 부동산 중개인 토마스는 외딴 성의 울퉁 백작과의 거래를 위해 긴 여정을 떠난다.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백작의 기이한 정체를 직감한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시로 내려온 백작은 병과 죽음을 퍼뜨리고, 그의 시선은 토마스의 아내 엘렌에게 향한다. 엘렌은 스스로를 미끼 삼아 백작을 유인하고, 새벽 햇살 속에서 그를 파멸시킨다. 그러나 그녀 역시 생명을 잃고, 저주는 함께 끝을 맺는다.

영화는 이미 널리 알려진 뱀파이어 서사를 거의 그대로 따른다. 스토리 자체의 신선함은 크지 않지만, 고전의 아이코닉한 장면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린 연출은 공포 영화 마니아들에게 충분한 매력을 선사한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재의 북토크

18일 광주극장 옆 '소년의서'

1985년 출간 당시 지하의 베스트셀러로 광주·18민중항쟁의 진실을 알렸던 책이 있다. 바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다. 책은 지난 1985년 출간 이후 2017년 개정판으로 재출간됐다.

책의 저자 가운데 한명인 이재의<사진> 작가 초청 북토크가 열린다.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극장 옆 영화가 흐르는 골목에 자리한 소년의서(대표 임인자)에서 펼쳐지는 이번 북토크는 책 발간과 재발간 과정을 비롯해 책에 담긴 그날의 진실 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책, 진실을 찾는 기록의 의미를 찾아서 두 번째'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공동저자인 전용



호 소설가가 사회를 말한다. 무엇보다 소년의서 오월서가에는 5·18 민중항쟁의 오랜 증언 집과 기록들, 오늘의 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오월의 책이 비치돼 있어 그의 의미가 각별하다.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인 이재의 작가는 5·18정신계승위원회 위원, 제8차5·18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병하 평전', 'Kwangju Diary' 등을 펴냈다.

참가비는 5000원이며, 행사 당일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삶디센터, '계절글방-여름 편' 참여자 18일까지 모집

무더운 여름, 글을 매개로 청소년들이 서로를 읽고 응원하는 특별한 글쓰기 모임이 열린다.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삶디센터)가 청소년 창작 모임 '계절글방-여름 편' 참여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

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삶디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여름 편은 오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총 5회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삶디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자연의 흐름 '시간을 담다'

조선아 개인전, 8월1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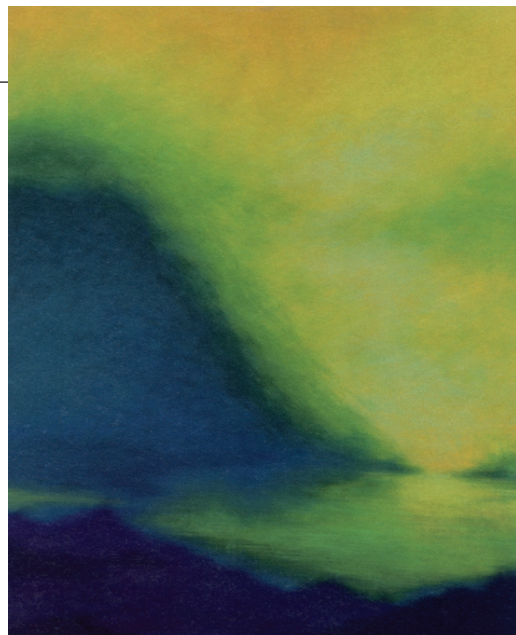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시간의 흐름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은 자연이다. 밤낮의 바뀔도, 계절의 변화도 자연을 통해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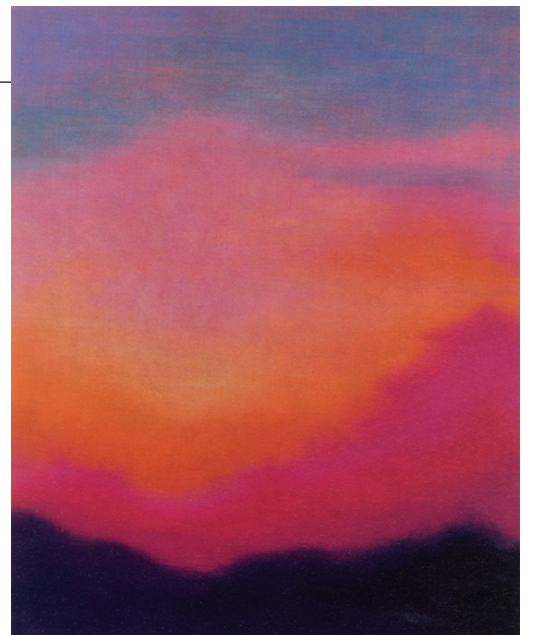
조선아 작가의 작품은 오랫동안 시간을 담아낸 흔적이 역력하다. 그의 그림에서 시간은 정지된 듯 흐르고, 흐르면서도 정지된 듯 서로 상반된 느낌을 환기한다.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오는 8월 10일까지 진행 중인 '시간을 담다'전. 시적인 제목만큼이나 시적인 그림들을 만날 수 있다. 각각의 작품들은 저마다 그윽한 한 편의 시로 다가온다.

작가는 일상 속 풍경을 기록하며 그 안에 깃든 시간의 흔적을 주목한다. 은은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 화폭에는 사계의 변화와 매 순간순간의 느낌이 배어 있다. 노을이 번지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심상과 감성이 기억이라는 시간과 연계해



'시간 속으로'



'기억의 처음'

발현된 이미지는 아련하면서도 서정적이다.

작가는 순간을 정제된 시선으로 기록하면서도 빛과 온도, 공기의 질까지 세세하게 담아낸다. 감정과 색채의 변화를 포착해 아름다운 화면으로 전이시키는 것이다.

'찰나의 시선', '별의 노래'는 얼핏 유사한 구조로 보이지만 그것에는 각기 다른 자연의 시간이 투영돼 있다. 또한 그것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간이기도 하다.

'기억의 처음'에서도 아련함, 자분함, 그리고 내면이 차오르는 충일함 등이 느껴진다. 감정의 파편을 다스리고 자연을 화폭에 담아냈을 작가의 인고

의 시간이 짐작된다.

조 작가는 "전통 안료인 분채와 아교를 활용해 한지 위에 겹겹이 색을 덧칠해 표현했다"며 "덧칠하는 작업은 시간과 감정의 층위가 맞물리는 반복적인 과정이자 자연의 흐름을 대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 작가는 전남대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조선대 미술대학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아트페어 및 부스전을 비롯해 아스트페이스 초대전 등 다수 전시에 참여했다. 광주시 문화예술상 허백련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선목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